

6월 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C 산업상이사회는 EC 내 12개국의 전기통신시장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에는 EC 전 회원국이 전화회선용에 접속되는 각종기기의 테스트를 서로 인정하기로 하고, EC각국의 전화전신당국과 EC이사회는 전기통신기기의 새로운 역내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EC 내의 업계통에 따르면, EC의 전기통신회사는 12개국 각각의 통신기준에 맞추어야 하기때문에 미국의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의 부담이 15%정도 높다고 한다. 따라서 EC 전 회원국이 전화기나 교환기등의 기준을 통일하게 되면 EC내 각 기업은 이 큰 시장을 전면개발할 수 있게된다. 한편, 테스트의 결과가 부실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일기 계획에 반대할 수 있는 유보조건도 덧붙이고 있다.

EC는 회원 12개국에 대하여 ISDN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이 추계 2천억불로 견적된 EC 시장의 일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ISDN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됨을 주장하고 있다. EC에 의하면 ISDN은 미래의 광대역 전기통신망구축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할 과정인데, 이것이 성숙기에 들어서려면 앞으로 8년정도가 소요되며 따라서 1993년경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본어와 영어사용자간의 통화가 가능한 자동번역전화가 미·일 양국에서 공동개발된다. 미 상무성 전기통신정보청(NTIA)와 일 우정성은 6월 16,17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전기통신정기협의회에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 산업, 관, 학계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자동번역전화의 개발은 국제전기통신수요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次世代)컴퓨터의 개발에도 연결된다. 공동개발에는 일본국제전신전화(KDD), 미국의 AT & T 외에도 일본측에서는 후지쯔(富士通), 히다찌(日立), 도시바(東芝)등 큰 컴퓨터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다.